

“음악으로 사랑을 배워요”

시골아이들의 아름다운 도전



담양 고서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담양청소년오케스트라가 16일 곡성휴게소(서울방면)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다.

담양 고서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회·음악인들 봉사 후원 힘입어 휴게소 등서 클래식 선율 선사

지난 16일 곡성휴게소(서울방면)에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가득했다. 담양청소년 오케스트라(단장 정현석) 단원 20여명이 들려주는 가곡과 동요 등이 잔잔히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다.

먹을거리를 사러 잠시 들렀던 고객들도, 휴게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가만가만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하며 음악을 들었다고,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로 답했다.

이날 공연을 가진 담양청소년오케스트라는 3년전 담양군 고서면에 살고 있는 초·중·고생 25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첼로, 바이올린 등 악기를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시골 먼 단위 마을에서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실내악단을 꾸리는 건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클래식에 관심이 많았던 정단장은 문화적으로 취약한 시골 아이들에게도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담양 고서교회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고서교회(담임목사 오명현)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교회 역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

회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서초, 고서중, 창평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악기를 직접 구입했고, 조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의 악기는 교회 측에서 구입해 나눠줬다.

교회 안에는 방음시설을 갖춘 전용연습실도 마련했다. 가장 중요한 레슨 선생님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민을 덜었다.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정기 레슨을 받는다. 김정렬 목사 부부와 자녀들이 자원봉사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CNS 윈드 앙상블 등 음악인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또 (주)유성환경, 곡성휴게소를 운영하는 안국산업 등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도 심시일반 힘을 도움을 보태고 있다.

아이들은 지난 2월 담양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큰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라 긴장하기도 했지만 2년여간 연습해온 실력을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뿌듯했다.

이번 휴게소 연주회는 당시 담양 공연을 관망했던 김현희

안국산업 상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주 모습을 지켜보던 김상무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아이들을 초청했다.

김현희 상무는 “아이들의 무대를 보면서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여러 사람들에게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해주고 싶어 연주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단장은 “시골 아이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른 작은 시골마을까지 확장돼 곳곳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11-8006-04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54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 〈심사위원〉
임옥희 교수(군산대)
김혜경 교수(조선대)
김신영 교수(목포대)
구재향 교수(호남신학대)
신수경 교수(전남대)
- 46 박한빈(광주미산2)
65 박성진(풍영2)
▲ 은상
15 김재은(목포예향2)
20 이의진(정안2)
31 강보경(일동2)
36 임다현(광주봉산2)
48 김채원(광주삼육2)
51 이현규(광주어룡2)
52 조윤진(태봉2)
53 장유진(월봉2)
59 윤주영(고실1)
75 김영환(두암2)
78 조운영(광주유촌2)
80 김서현(월봉2)
86 이명훈(목포항도2)
- ▲ 동상
9 정수인(목포신흥2)
21 김채현(광주삼육2)
29 김시윤(광주불로2)
39 신지은(봉선2)
44 윤서진(순천조례2)
45 서승희(무등2)
47 이후원(수완2)
50 김여주(봉선2)
74 유유빈(첨단2)
76 김지인(순천중앙2)
90 최다연(광주송원1)
91 조은비(선창2)
92 나세영(연제2)
98 조민욱(봉선2)
104 노민경(목포항도1)

초등 1·2학년

- ▲ 최고상
7 이도현(광양제철2)
▲ 금상
4 최시웅(운리2)
17 노현민(광주월계2)
23 홍성란(광주불로2)

초등 3·4학년

- ▲ 금상
8 이신화(광주학운4)
18 김도영(일곡4)
44 김지명(금구4)
67 이소민(주월3)
76 박소현(군산지곡4)
103 장세윤(광주풍향4)
115 서정우(문산4)
143 김승희(여수여도4)
145 김정우(태봉4)
▲ 은상
6 김민정(광주학운4)
10 김차영(곡성중앙4)
21 진형주(일신3)
36 이은재(광주서4)
39 허 평(진월4)

- 41 박소유(금구4)
81 임예림(광주양산4)
82 강로빈(봉산3)
83 이다연(녹동4)
92 안희연(목포연산3)
96 이창호(풍영4)
129 오수빈(나주4)
137 박민서(목련4)
138 홍수정(목포서해3)
142 김유진(목포부영4)
146 송준서(학운4)

- 32 임소은(유안3)
35 양지호(광주효덕3)
43 홍수진(목포신흥3)
46 김다은(목포청호4)
47 임세정(제석3)
56 주민지(봉산4)
58 박나연(목포신흥4)
65 이서현(전주인봉4)
79 최현욱(선창4)
97 노현영(문리3)
110 이단비(운남4)
111 김유선(광주장원4)
113 김대영(군산지곡4)
118 박소안(광주봉산4)
120 조명섭(영광4)
135 박수진(동림3)
139 이명경(금구4)
140 정효인(동림3)

초등 5·6학년

- ▲ 최고상
128 정연지(화산만연5)
▲ 금상
17 최정우(일곡6)
22 박시연(광주월계6)
23 정선유(일곡6)
24 김은지(유안6)
30 천주석(광주서산6)
81 양진산(광주효덕5)
86 이수현(녹동5)
149 윤예서(군산수송5)
▲ 은상
8 김한솔(매곡6)
16 류정민(태봉5)
21 양나연(수완6)
28 조은샘(광주불로6)
46 이채훈(수완5)
48 김요섭(화산만연5)
58 장다은(만호5)

- 63 이다혜(광주송원6)
92 이지혜(봉산5)
99 박하민(해남서6)
101 조현화(광주신암6)
113 위승민(광주장원6)
116 고정연(삼례서6)
118 김재연(광주미산6)
143 김수빈(목포신흥6)
147 김하연(광주봉산5)

- 51 김동빈(유안6)
61 조수영(화산제일6)
65 백은진(일곡5)
67 정지수(만호6)
69 이선우(광양마동5)
70 박소진(광주진제5)
72 김수진(매곡6)
73 김자현(여수도원5)
83 임다은(유안6)
91 백시현(풍영5)
112 송명기(광주서석6)
115 송은아(고창6)
142 최보금(치평6)
151 김성은(월봉5)
153 임수현(삼각6)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 인물사진 2매를 5월 23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여자들에게 오후 4시는?

현대사회 여성·어머니의 삶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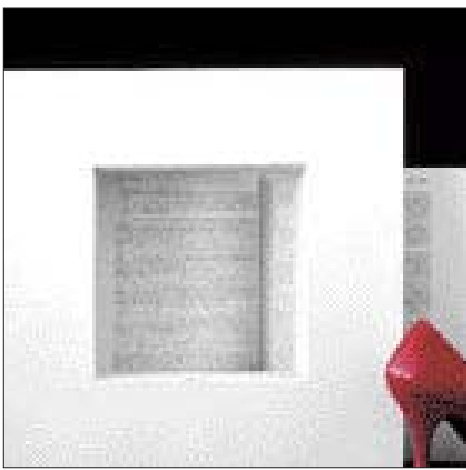
무등현대미술관 '오후 네시 여자전'

여자에게 오후 4시는 갈등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직장 생활이 끝나가지만 퇴근 후 집안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또 전업주부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슬슬 남편의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무등현대미술관이 오는 28일까지 현대사회의 '소의 계층'으로서의 여성과 어머니의 삶을 재조명하는 '오후 네시 여자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진화, 박현화, 소빈, 이매리, 전현숙, 정숙영, 정춘표, 조윤성, 진경우, 한미경씨 등이 참여해 여성의 사랑과 꿈, 좌절과 상처 등 삶의 흔적이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박현화는 구겨진 동을 흠뻑 이어 붙여 동판의 자국과 주름, 구멍, 땀자국을 강조한 '오후 4



이매리 작 'portrait of shoe'

의 여자'를 전시한다.

또 이매리씨는 고단한 일상에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표현한 'portrait of shoe'를 선보인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134번째 연주회

21일 오후 문예회관

광주시립합창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현재 남양주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중인 임한귀(사진)씨를 초청해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공연 레퍼토리는 가브리엘 포레의 '장 라신느의 찬가', '레퀴엠 작품 번호 48'와 '오 아름다운 밤이여', '만추', '어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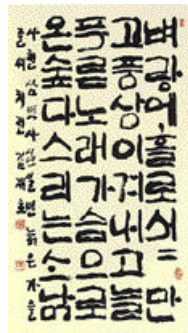
황양숙(호남신학대 교수)씨가 오르간 연주를 맡는다. 문의 062-510-93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예의 아름다움 형상화...김재호 개인전

한글 서예의 아름다움을 붓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김재호(광주 무학초등학교 교장)씨가 오는 22~28일까지 광주학생교육회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한글 서예의 단순함을 뛰어넘는 서예미를 구축한 다양한 서예를 선보인다.

그는 장전 하남호선생 문하에서 수학했고, 지난 1978년 첫 작품전을 가진 후 30여년 동안 다양한 전시회 참여하고 있다. 또 한국미술협회원,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 미술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벼랑에 흐를 서'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3세대 스마트·세계보청기

1388-4400 / 010-722-4400